

## 2. 2011년 재정운영 방향

### □ 재정여건

- 의존수입은 정부예산 증가영향으로 일정수준 증가, 거래세 중심의 도세는 부동산거래 감소 지속 등으로 소폭 감소
    - 전반적인 세입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
  - 세출수요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, 국고보조 의무부담, 기존사업 마무리 등으로 증가
    - 자체사업 가용재원 규모는 금년보다 다소 감소(지방채 축소)
- ⇒ 금년도에도 재정의 안정·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운용이 불가피

### □ 예산편성 방향

- 인건비·부서운영 경비와 채무상환 및 법정 필수경비 등 조직운영 필수수요는 전액 반영
- 행정안전부가 규칙으로 정한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 준수 및 행사·축제성 경비 등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반영
  -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(한도액 230, 편성액 219) 관리 강화
- 지방도 확포장 등 SOC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원배분
-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 부담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전년 수준으로 보조율 유지, 재정여건 호전되면 종전대로 환원
- 도의 당면현안과 시군별 핵심사업은 우선 마무리 위주로 지원
- 가용재원은 민선5기 도정 핵심과제 추진에 집중 배분
  - 일자리 만들기, 교육, 복지 등 민선5기 도정목표 실현에 총실
  - 무상급식, 경로당 지원강화, 양양공항 활성화, 시군특화사업지원 등
-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발행 한도내에서 최소규모 지방채 발행

## □ 예산의 특징

- 의존수입은 정부예산 증가영향으로 증가했으나, 취·등록세 등 거래세 중심의 도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폭감소  
 ※ 순도세 규모(지방교육세 제외) '10년 4,016억원 → '11년 4,000억원(16)
-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에 주력하면서  
 도정목표 실현에 중점 투자
- 행복한 강원도 민선5기 도정 핵심과제 추진에 가용자원 집중배분

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알펜시아 활성화	(3개사업, 280억원)
② 일자리 만들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	(8개사업, 632억원)
③ 지역통합형 행복교육 추진	(3개사업, 6억원)
④ 관광문화 육성	(5개사업, 64억원)
⑤ 강원도형 복지모델 정립	(4개사업, 9억원)
⑥ 강원도 포털 운영	(1개사업, 20억원)
⑦ 교통망 확충 및 지역개발	(4개사업, 1,865억원)
⑧ 친환경 무상급식실시 및 농·특산물 판매확대	(2개사업, 93억원)
⑨ 도정 행정역량 강화	(1개사업, 비예산)
⑩ 강원도의 가치·이익제고 법제화 추진	(5개사업, 3억원)

- 긴축절감편성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
  - 축제·행사성 경비 등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등 절감편성
  - 민간단체, 협회 등에 위탁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자체추진 전환
  - 시군 현안사업은 시급성, 효율성 등을 감안,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하여 도정시책과 연계하여 선별지원
  -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은 전년수준으로 보조율 유지
  - 경상경비 절감 : 도지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%절감 편성
- 지방채발행 대폭축소\* '10년 700억원 → '11년 200억원(500억원)  
 ※ 재정의 건전성·안정성 확보를 위한 초 긴축재정 운영 의지 피력